**더 플랜**

김성은 박유빈 임채현

이미 우리는 너무 무서운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단지 아직까지는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인간을 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기계를 너무 믿고 있으며 별로 의심을 하지 않는다. 당장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이폰을 봐도 그러하다. 오류가 생겨서 핸드폰의 배터리가 0%도 아닌 15%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꺼지는 현상을 종종 볼 수 있다. 이 오류의 원인은 핸드폰의 전체 배터리를 아끼기 위한 시스템의 오류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오류인가? 그러나 애플은 아직도 이 오류를 개선할 방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우리가 운이 없는 것이다. 운이 나쁘게 오류가 생기는 핸드폰을 고른 것이다. 이렇게 기계는 어느면에서도 전혀 완벽하지 않다. ‘오류가 없는 기계는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다.

보통 사람들은 기계가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부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계는 한 사람만의 기준에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즉 어느 누구의 의도대로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계인 이상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나의 말을 잘 듣는 만큼 해커의 말도 잘 듣는 친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계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믿어 버린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영화 안에서 눈물을 보인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 너무 억울하고 무참히 무시당한 기분이다. 그리고 ‘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 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다. 분명 우리는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말하고 민주주의에 기반해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에 의해 선거를 해서 직접 대통령을 뽑고 그 결과를 기계로 거르고 공표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기계를 믿을 수 없으니 사람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 그 기계를 만들고 조작하는 것도 사람인데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이며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 정말 어려운 부분이다.

이해 대해 토론해본 결과 해결책에 대한 생각은 모두 달랐다. 모든 선거용지기계의 중앙시스템에서 미리 시범 테스트를 공개적으로 거친 후에 바로 본 투표 확인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투표 결과 자체를 공개적으로 방송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었고 영화 속 감독이 말한 것처럼 기계랑 사람이 직접 세는 순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개개인의 생각이 다양한 결과를 보인 만큼 전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거라고 예상한다. 하지만 솔직히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도 또 다른 조작이 가능한 상황은 항상 열려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해도 안될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노력과 시도를 거치면 분명 100%에 수렴하는 좋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해결책이 당장 바뀌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영화속의 내용이 대중매체와 사람들에게 더더욱 각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의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단순히 2012년도의 대선이 조작이라는 것 같다는 사실을 넘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 개표 시스템이 간단한 방법으로 인해 조작될 가능성이 난무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지어 이번 선거 개표 역시 동일한 기계를 사용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모두가 알았으면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이런 기계에 우리가 100% 의존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저 우리의 의식이 더 발전 하는 것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모두의 시민의식이 더 날카로워지고 진실의 가치가 소수들의 욕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좀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기계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이 되었고 진실이 밝혀 바로 잡을 수 있는 순간은 이미 지나가 버렸다.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할 일만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많이 사람들이 앎으로 인해서 선거 시스템이 좀더 공정하게 바뀐다면 앞으로 있은 많은 선거에서 지금보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지도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믿는다.